

콘스님 수행한담

집착하는데서 비극 시작



“아무리 많은 공양·예불 올려도 중생교화 서원 실천 못하면 부처님께 큰 빛 지는 일”

식이나 경험들을 내던짐으로써, 지식으로 인해 가리워졌던 자신의 본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은 마음 앞장서 일어난 것이고 마음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본 마음자리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동안 어린이 포교의 벽에 부딪혀 실의에 빠져있던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사람은 청소년연합회 결성의 산파 역할을 했던 안병호거사였습니다. 초대 문교부장관도 지내셨던 안병호거사는 서울 개운사에서 어린이 법회도 지도했어. 그때 서울지역에 20개 어린이 법회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안거사와 함께 열심히 했지요. 결국 20개까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청소년교화연합회의 모태가 됐습니다. 당시 마포 석불사, 청룡사, 약수암 등 10여개 사찰이 모여 어린이연합회로 창립했습니

가의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나의 출가는 먼저 스님이 되신 형님덕분에 이뤄졌습니다. 남장스님이라고 동화사 주지를 지내셨는데 일제말기에 금강산에서 무풍스님을 만나 출가하신 분입니다. 어느날 그 형님이 스님이 돼 집에 오셨는데 그때 형님으로부터 '부모은중경' 이야기를 아주 감명깊게 들었지요. 그 길로 형님을 따라서 중이 되었습니다. 전 생으로부터의 인연인가 봅니다. 열여섯살에 출가해 고창 선운사와 문수사 내원암 등지에서 행자생활을 하고 나주 다보사에서 은사인 인곡스님을 만났습니다. 은사스님은 6.25 전쟁 전후에 해인사주지를 잠시 하셨는데 무척뚱뚱하지만 공부하기 좋아하는 대선재이셨지요. 큰 수좌가 되길 바라셨을 스님의 기대를 생각하면 나는 은사 스님한테 불효를 많이 한 셈입니다. 스님께서는 볼 때 마다 내게 출가를 했으면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해야지 노래가 다 뭐냐 하고 꾸짖으셨거든요.

찬불가 포교도 열심히 해왔지만 50여 년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와 예불을 통한 정진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 수행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은사스님의 경계를 늘 생각하며 본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왔지요. 또 교화엔 밝지 않지만 강원에서 공부한 것도 4백여곡의 찬불가를 만드는 소중한 밑천이 됐습니.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을 위해 보배의 탑을 가득히 쌓고, 불전에 많은 공양과 예배를 올린다 해도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를 위해 세우신 큰 서원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빛을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대 감각에 알맞는 포교방안을 수립해 젊은 청소년을 교화 육성하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스님이 평생 법문 하는 것만큼 청소년 포교는 불교의 미래를 개혁하는 '보현보살행'임을 명심하고 불자들도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가 없던 시절이라 가사는 내가 쓰고 목포시내 음악교사인 김재민씨에게 곡만 붙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내가 최초로 만든 찬불가이자 스님으로서는 처음 가사를 쓴 것으로 기록된 '경배하세'입니다. 이 곡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학교 교가를 죽 모야 가사만 찬불가로 바꿔 부르곤 했습니다. 나도 초창기에는 노래에 대한 관심

이요. 가장 기억나는 것은 해인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했었는데 당시 학인들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극락전으로 밀려났다가 결국 중단한 일입니다. 또 61년경 대각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하다가 선방스님의 반대로 못하게 된 적도 있지요. 어린이 포교가 생소했던 시절이라 당시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찰들이

“익혀온 지식·경험 내던져야 본마음 찾아” “찬불가 듣고 부르는것 기도 못잖은 신행”

는 있지만 작곡에 대한 인식이 없어 교회 극중에서 오래되고 안 쓰는 것을 골라 약간 수정해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 시절 교회 성가곡들은 일본곡을 표절한 것이 많아 엄격히 따지면 초기의 찬불가는 일본 성향의 곡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요즘 작사자들처럼 내 작품 하나 근사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널리 보급해야겠다는 마음 뿐이었지요.

나는 가사를 짓는데 있어서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로 잘 읊길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노랫말을 짓기전에 경전과 계승을 갖다 놓고 뒤져 봅니다. 조사스님 계승을 인용해 지은 곡들도 몇곡 됩니다. 찬불가를 통한 어린이 포교가 보람은 있었지만 어려운 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었

거의 그런 실정이었습니. 나는 가사가 안 써지거나 마음이 안잡힐 때면 화두인 '이렇고'를 잡고 참선을 합니다. 화두는 바로 깨달음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지요. 스님이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할 때만 던지는 물음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문제라든가, 과학문제, 또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도 일종의 화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단지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이지 인생의 본질에 대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두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불교의 화두는 인생의 본질, 즉 마음을 해결하는 문제 제기로서, 이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온 모든 지

다. 그 때 나는 '사찰에 피아노가 흔할 정도가 되면 찬불가를 마음놓고 부르는 시대가 올거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시골 사찰에도 피아노가 없는 곳이 거의 없으니 내 예견이 맞아 떨어진 셈이지요. 요즘도 불교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음악 교재로 사용하더니 찬불가교재 보내달라고 할 때라든가 골목이나 사찰에서 흥겹게 내가 지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목격할때면 그동안 고심했던 일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며 그렇게 기쁠수가 없어요. 예전보다 불교가 훨씬 젊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불비니학성회 이외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 사찰에 어린이법회나 청소년법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니 말입니다. 45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처음 출가할 때보다 승공과 승



한성룡

〈대한불교예술원 대표〉

<하>

법홍사 도착한 첫날 이불도 없는 빈 방에 지친 몸을 내던졌다. 법홍사에는 기도객들이 많았지만 속인은 나 혼자였다. 몸은 부처님 품에 있었지만 마음에는 쾌광 직전의 탄광, 빛속속의 아우성이 여전히 떠나질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온갖 잡념으로 고뇌하고 있을 때 주지스님이 오셔서 잠이 오면 앉아서 잘지 언정 놓지 말고, 묵언하고, 기도시간 철저히 지키라 등의 기도수칙을 일러주셨다.

기도는 새벽 3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이어졌다. 예불과 공양시간을 제외하고는 '화엄성중' '식가모니불' 정근기도를 해야 했고, 밤에도 혼자 정진해야 하는 강행군이였다. 처음에는 스님들을 따라서 할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

기도할 수 없어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그런데 등산객 30여 명이 기도실쪽으로 다가 오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기도실 옆 토굴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갑자기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었고 지나온 삶이 필름처럼 훑 돌아갔다. 이제는 등산객들이 지나갔는지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점심공양시간 공양주보살에게 꿈이 야기와 기도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등산객들이 갔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후기도를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오전에 왔던 등산객들이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공양주보살은 기도영험을 봤다고 야단법석이었다. 사실 그 때부터 나의 연행은 완전히

법홍사에서 7일동안 정근기도 가피체험... “늘 같고 닳자” 다짐

서 기도가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됐다. 그러면서 어색함도, 속스러움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하면 더 큰 목소리로 독송했고, 그레도 안되면 절을 했다.



바뀌었고 신심도 났다. 7일기도 회향날 기도객들은 한자리에 모여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때 야 같은 웃음은 여인이 누운 자를 알게 되었다. 바로 기도를 열심히

기도생활이 익숙해졌을 때였다. 빈 방에 홀로 앉아 물러오는 수마와 싸우다 비몽사몽에 빠져드는 찰나, 검은 웃을 입은 여인이 웃으면서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런 산중에 저렇게 예쁜 미인이 다 있을까.” 유혹에 빠져들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정근이 터져나왔다. 여인을 물리치기 위해 짓먹던 힘까지 다해 한참을 정근하다 정신이 들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새벽 예불시간직전 곧바로 해중스님을 찾아가셨다. 꿈속의 상황을 이야기하려하는 순간 스님은 내 입을 틀어막았다. 예불시간 내내 “그 여인은 누굴까. 왜 나를 찾아왔을까” 곰곰히 생각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침공양을 마치고 기도실에서 '화엄성중' 정근을 하며 절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참으려 애쓰면 더욱 울음이 북받쳤다. 결국 부끄러워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사자산 법홍사를 지키는 신장이라는 것이다.

기도를 마치고 출가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돼 있었다. 후원자도 나타났고, 인부들까지도 탄광을 일으키겠다고 발 벗고 나서서 내가 나타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탄광은 다시 가동됐다. 한달이 지난 무렵 검은 웃 입은 여인이 또다시 꿈속에 나타났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탄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결국 탄광에서 1급 탄이 나왔고 탄광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나는 법홍사 기도를 통해 불연을 헛되게 하지 않고 늘 같고 닳아야 한다는 신행의 기본 진리를 터득하게 됐다. 지금은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는 부처님 일을 하고 있다. 내 안에 깊이 잔재해 있는 번뇌를 소멸하고 불자들의 안락한 안식처를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원력이다. (끝)

Advertisement for the book 'Gwan' (觀) by Guseon. The ad features a large title '불교의 계율을 깬 파계승인가 모든것을 다 얻은 득도승인가!' and '서기 2000년,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 It includes a list of bullet points about the book's content, such as 'Guseon, who is he?', 'He reveals the secret of 1000 years', and 'The story of a man who broke Buddhist precepts to become a heretic'. There is also a small illustration of a man's face and a large graphic of the character '觀'.